# *Party~* 때론 우아하게 *Party~* 때론 개성있게

## 광주 테마 파티클럽 '벨라지오'

**매달 재즈·영화 등 문화 테마 통해**

**유쾌하게 즐기며 사람들과 교류**

**60여명 회원 '광주 파티문화' 선도**

문화와 놀이가 어우러진 건전한 '파티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주 테마 파티클럽 '벨라지오' 회원들.

성실하고, 일 잘하면 인정받았던 옛날과 직장인들과 달리 요즘 직장인들은 잘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말 잘하는 것은 필수요, 영어는 선택이요. 거기에 놀기도 잘해야 성공한다. 알아야 할 것도 많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 영화, 드라마까지 두루 꿰고 있는 문화인의 역할도 겸해야 하는 직장인은 바쁘다.

아직은 익숙지 않은 파티문화를 이끌며 어른들도 잘 놀 수 있는 '놀이마당'을 만들어 가고 있는 동호회가 있다. 광주 테마파티 클럽 '벨라지오 클럽'의 회원들이다. 이탈리아어로 좋은 모임, 장소를 뜻하는 '벨라지오'의 의미처럼 회원들은 파티라는 문화를 통해서 좋은 인연을 쌓고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파티라고 해서 거창하고, 흥청망청 노는 것은 아니다. 매달 문화와 관련된 테마를 정해 좀더 재미있고, 유쾌하게 즐기며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고 있다.

지난 2007년 2월14일 처음으로 발렌타이데이 파티를 열었던 동호회는 가면무도회, JAZZ 콘서트, 와인파티, 할로윈 파티, 살사댄스파티 등을 열면서 즐거운 놀이마당을 즐겼다. 막연히 동경하던 소재를 테마로 잡아서 회원들이 쉽게 파티를 접하면서 새로운 놀이문화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지금은 50~60명의 회원이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파티하면 사교파티, 귀족파티, 엘리트파티 등 상위 소수만이 가는 거창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격식을 갖추고 옷도 잘 차려 입어야 한다고들 여겨서 참여 자체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추현호(30)씨도 파티와는 거리가 먼 보수적인 한국 남자였다.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모임에 참가했던 추씨는 "처음에는 파티라고 해서 왠지 거부감이 들어 참여를 꺼렸었다"며 "막상 참여해보니 취하도록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테마에 따라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클럽장인 어예강(28)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파티문화를 접한 뒤, '광주에는 왜 이런 문화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아예 파티 동호회를 만들었다.

그냥 사람들 속에서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고 가볍게 술을 마시며 즐기던 서울의 파티를 생각하며 동호회를 만들었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파티 문화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문화에 목말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긴 했지만 먼저 말을 걸지도 않고, 회원들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게다가 끼리끼리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 쑥스럽고 어색해, 같이 왔던 친구와 얘기만 나누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씨는 "파티를 준비하면서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지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사람들이 진심으로 즐기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파티문화를 더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재즈, 국악, 영화음악, 살사 댄스 공연 등을 보면서 가볍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다양한 파티를 기획했다. 최고급 공연은 아니지만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와 파티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문화 테마에 따라서 참여하는 연령대도 조금은 차이가 난다. 재즈와 국악 크로스 공연에는 은혹식 대신에 노부부가 두 손을 꼭 잡고 나와 젊은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었다.

직장일로 서울에서 광주에서 온 지 7개월이 되는 손용태(27)씨는 "서울에서 할로윈 파티에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장소만 마련되면 프로그램을 즐기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과 달리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 술문화 외의 놀이 문화에 익숙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광주의 문화에 흠뻑 빠져, 운영자로 나서 초보자들이 문화 즐기기에 익숙해지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은 앞으로 바비큐파티, 7080 통기타 음악파티, 추억의 교복파티 등을 열고 20~50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생각이다.

"먼저 자신의 취향에 맞춰 파티를 선택하고, 파티에 와서는 대화의 코드가 맞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꼭 친해져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즐겁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즐기세요"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 어예강 클럽장이 말하는 파티 즐기기

## "남의 시선 NO … 자신만의 시간 즐겨라"

## 평상복에 엑세서리 포인트 주면 '의상 OK'

광주 유일의 파티클럽 벨라지오 클럽장 어예강(28)씨는 처음 파티에 가게 되면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것과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솔직하고 센스 있게 표현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절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만의 파티를 즐기라고 말한다. 파티문화도 첫발을 떼는 것이 어렵지 즐기다 보면 금세 익숙해진다는 설명이다. 파티하면 가장 사람들을 고민스럽게 하는 드레스 코드. 어떻게 하면 부담없이 파티를 즐길 수 있을까?

'파티에 참석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 입을 의상과 머리스타일 등 '어떻게 하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늘 파티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의상을 고르고 맞춰야 하나 고민되는 게 사실이다. 파티에서의 드레스 코드는 일종의 맛깔스런 '양념' 같은 역할을 한다. 파티라는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많은 양념 중 하나이므로 잘 맞춰 주는 것은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에티켓이다. 드레스 코드는 파티의 중요한 양념이지만 결코 부담스러운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 여성과 남성 모두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여성의 경우 머리에 묶는 끈 하나, 아니면 목에 간단하게 두르는 스카프, 반지, 목걸이, 벨트, 가방 등 액세서리 하나를 포인트로 살려보는 것이 좋다.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주면 컬러나 아이템으로 주어지는 드레스 코드를 센스 있게 연출해 낼 수 있다. 꼭 옷을 입는 것으로만 드레스 코드를 맞추겠다는 생각은 말자. 남자들도 어려워 말고 기분 전환에도 좋을 것 같은 손수건이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타이, 포인트로 연출할 수 있는 양말 등을 센스있게 매칭하면 드레스 코드를 잘 연출한 듯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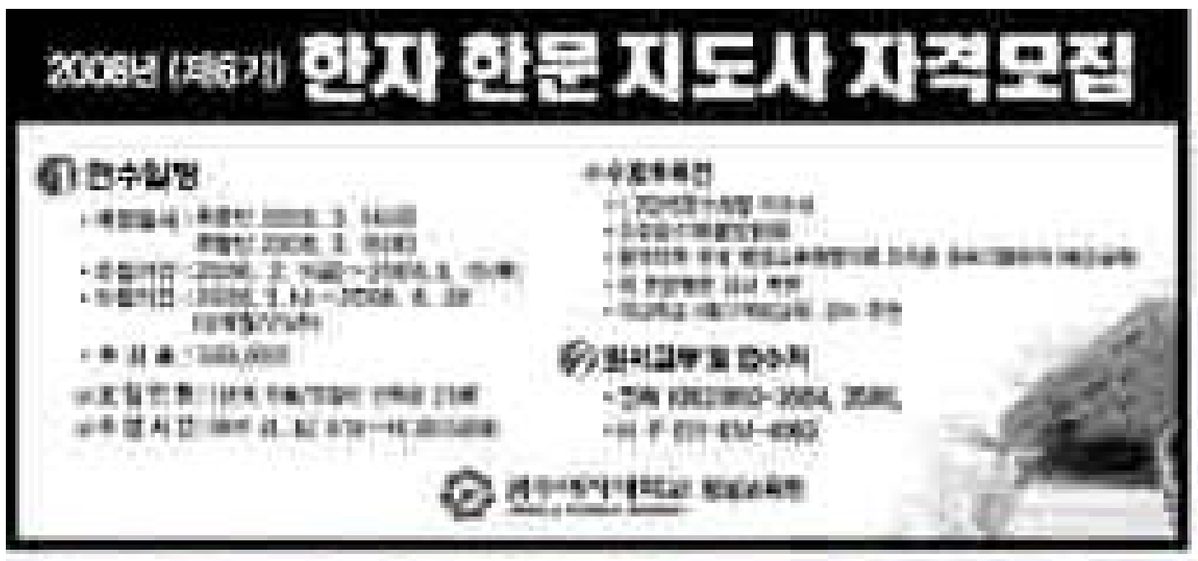
**둘, 입고 갈 수 없다면 들고 가라**

오렌지색이 파티의 드레스 코드라면 상큼한 오렌지를 바구니에 들고 가서 내가 만나는 상대편에게 선물하라. 그러면 나도 즐겁고 선물을 받게 되는 상대편도 파티에서 뜻밖의 즐거움을 얻어가므로 기억에 남는 파티가 될 수도 있다.

**셋, 과감한 의상에 도전하자**

파티에 한번쯤 Sexy 하게 등이 드러나는 블랙 또는 레드 드레스, 핫핑크의 Sexy 블라우스를 블랙 슈트와 함께 연출해 보자. 핫핑크 만으로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기분이 업~될 것이며 달콤해질 것이다. 또 가리려고 하면 더욱 두드러지는 법. 과감한 의상연출과 적당한 노출은 오히려 연말 파티에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당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드레스 코드가 어렵다고, 입을 옷 없다고, 매치할 액세서리가 없다고 신나는 테마의 멋진 파티를 포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파티에 입고 갈 옷 고르기, 액세서리 고르기를 가끔은 즐겨보는 것도 좋다. 이것은 지루한 일상 중에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드레스 코드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 여유있는 숨 고르기를 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자. 파티에도 가보고 파티에 입고 갈 옷도 골라보는 것을 시작으로 색다르고 즐거운 놀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